

“음욕은 번뇌의 뿌리”...발길제는 아라한과 증득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3)

백정 어머니의 주술에 걸린 아난

아난이 길을 가는 중에 목이 말랐다. 마침 발길제라고 하는 전다라(백정) 여인이 물을 길고 있어, 아난은 다가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은 아난에게 말했다.

“저는 마다가 종족으로 백정 발길제입니다.”

아난이 말했다.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저 물 한 모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요.”

여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석가의 종족이시며, 바사니왕 조차도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리 부인의 스승이신데, 이렇게 천한 신분의 제가 감히 물을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만 주시면 됩니다.”

그제야 여인은 먼저 물을 한 움큼 움켜쥐고 아난의 발에 뿌리고 다시 물을 움켜쥐어 아난의 손에 뿌렸다. 그러자 여인에게 음욕이 일어났다. 아난은 물을 마신 뒤 바로 떠났다. 발길제는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어머님, 아난과 말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그는 석씨 종족으로서 성스러운 귀족이다. 하늘과 사람이 모두 높이 받드는 분인데, 우리 같이 천한 집안이 어떻게 혼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격정되어 말했다.

“마다가신께서 말씀하신 부처와 주님이 있다. 해와 달을 옮겨와 땅에다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주문으로써 제석과 범천을 아래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거늘, 하물며 사문 하나쯤 언저 못하겠는가?”

딸은 이내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목치장을 했다. 하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불을 펼쳐 놓고 아난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소똥을 땅에 바르고 오색 줄로써 실을 매었다. 또 네 개의 병에다 물을 가득 담고, 네 개의 주발에다 미숫가루 물을 가득 부었다. 네 자루의 큰 칼을 소 똥 위에다 세우고, 끝이 사각으로 된 화살 네 개에다 팔명등을 켜고, 그리고 네 개의 죽은 사람 해골을 가져다 갖가지 향을 그 위에다 바르고, 꽃을 땅바닥에 깔고 작위두소 향을 사르면서 세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는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서 마다가의 주술을 외었다. 이때에 아난은 기원의 숲에 있었는데 기원이 문득 황홀해지면서 주술에 얽히고 말았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 줄에 걸리듯 주술을 따라 전다라의 집에 이르렀다. 발길제가 밖으로 나와 아난을 안아다 평상 위에 앉혀 두었다. 아난이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어둑기만 한 것이 마치 해와 달이 모두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난은 힘이 세어 10대 역사들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날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난은 거룩한 도의 힘으로 주술

을 깨고 정신을 간신히 되찾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세존께서는 어찌 나를 가엾게 여겨 주지 않으실까?”

이때 부처님께서 바로 아시고 계승을 외우셨다.

“부처(佛)는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부처보다 뛰어난 이 없도다. / 부처는 인천(人天)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범의 왕이요 위없는 복발이다.

법(法)은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법보다 뛰어난 것 없도다. / 법은 인천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모든 열한 맺음을 끊고 영원히 수는 복발이다.

승(僧)은 세간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승보다 뛰어난 이 없도다. / 승은 인천에서 가장 높아서 / 진실로 아름다운 복이며 위없는 복발이다.”

아난은 이 진실한 부처님 계승의 힘으로 전다라의 집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계승을

르면서 장자들에게 말했다.

“아난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은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이 돌아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발길제와 이야기를 나누되 누이 대하듯 하거라. 왜냐하면 발길제는 마땅히 비구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길제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 오직 원하오니 저의 남편을 돌려주십시오.”

“만약 아난이 필요하다면 나의 범 중에서 비구니가 되어라. 그러면 아난을 주리다.”

발길제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하니 그의 부모는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발길제와 그의 부모가 함께 부처님께 돌아오자 세존께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수없이 많은 방편



삽화 · 강병호

다 외우시자, 전다라의 집안에서는 세워두었던 주문의 도구인 칼과 화살이 꺾이고 병과 주발이 깨지며 등불이 꺼지고 해골이 박살났다. 흑풍이 일어나 사방이 보이지 않게 되더니 전다라의 주술도 힘을 잃고 말았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이는 분명 부처님의 신력일 것이다.”

아난은 기원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발길제는 아난을 따라 기원 앞에 와서는 나란히 서서 말했다.

“아난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난은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발길제가 아난의 뒤를 바짝 따르며 잠시 동안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므로, 아난이 자세히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법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하깨비 같은 미혹은 본 적이 없다. 이 여인은 음욕으로 생각이 완전히 묶여 있다.”

아난이 새벽에 가사를 하고 발우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결식을 하는데, 발길제가 그의 뒤를 따

으로 모든 범의 이치를 보여 주셨으니 음욕이 부정하다는 이치와 모든 번뇌의 뿌리는 계속해서 자란다는 이치와 출가의 이치와 열반에 이르는 도의 이치를 설하셨다. 그리고 4성제를 말씀하시자 발길제는 거룩한 진리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그녀의 부모는 아나함의 도를 얻었고, 딸은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그리고 발길제는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뉘우치고 비구니가 되어서 세존께 의지하기를 청했다. 부처님께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에게 계를 주게 하라.”

여인을 데리고 가자 대에도가 아난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전다라 여인도 도를 닦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에도가 이내 머리를 깎아 주고 계를 주니, 아라한의 도를 얻을 수 있었다. (《계인인경》 제3권에 나오며, 《마다가거녀경》에도 나온다.

구성=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㉓



젊은 날 출가의 꿈은 접었지만

대마도의 덕혜옹주 기념비

얼마 전 여중 동창회에서 대마도에 여행을 갔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그곳에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쇼핑하기 위해 가는 코스라고 했다. 한 번 다녀왔던 사람은 볼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그곳에도 꽃이 피고 나무가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른날 처음으로 간 곳이 전주 왕가의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다. 비문에는 “조선국 제26대 고종의 왕녀 덕혜옹주는 1931년5월 중무지공과 결혼하여 동년 11월에는 대마도를 방문했다. 옛 대마도주종가 당주가 조선의 왕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내도 하였으므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써있었다. 그리고 이 비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여 대마도 거주 한국인들이 건립했고, 한편 청수산성에서는 대마도 도민들이 경축하여 세우고 심었던 기념비와 철축이 지금도 잘남아 있다고 적혀있다.

결혼생활은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딸 정혜를 낳

다운 풍경과 스님들의 일상을 소개한 영화였다. 그녀는 한 장면도 일부러 영화처럼 꾸민 것이 아닌 다큐였다. 스님들의 일상에 애환과 고뇌 그리고 애잔한 슬픔도 있었다. 나도 그 옛날 처녀시절에 출가의 뜻을 품고 물레 집을 빠져나갔다가 도중에서 잡혀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전국의 큰스님들이 다 알아주는 신심이 지극한 분이셨고 스님들께 손 소리도 농담도 잘 통하셨던 분이셨는데도 딸의 출가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절에 다니게 된 그때는 새벽마다 집 앞의 부산 대각사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 “꽃 보살아 절에 가자.”며 지금의 도반들이 나를 깨웠다. 그러다 천수경도 반아심경도 금방 외워 아버지 앞에서 자랑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걱정하셨던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이든 처녀가 비구승의 절에 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오늘부터 절에 가지 말고 집에서 경이아 일하라.”고 하셨다.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절에 다니지 않았을 때이긴 했어도 처음엔 아버지도 나를 대견해 하셨었다. 청담 스님께서 대각사에 오셔서 법문을 하실 때는 손수 경곡과악을 만들어 내게 들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 역시입니다.”라며 소개해 주시다가까지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내가 나중엔 도리어 아버지를 걱정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몰래 대각사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루 두 번씩 백일을 마음먹고 백발 배를 하러 다녔고, 그 틈에 부산불교 청년회에도 가입하여 법문도 열심히 들으러 다녔다. 그리고 진주 음식사에서 100일 기도와 강화 보문사에서 두 달간 기도도 다녔다. 어느 날 모두 아시게 된 아버지는 깊은 걱정에 드셨다. 그토록 걱정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불심만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출가의 꿈은 접었지만 불자로서의 삶은 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원성 보살이 있을 수 있었다.

왕실의 비극 보고 민족에 느껴 영화 '길 위에서' 보고 출가발심 추억

아 서로 신의와 애정이 깊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갈등이 심하여 두 분은 1955년에 이혼하였다고 한다. 무지공은 1985년에, 덕혜옹주는 1961년 귀국 후 1989년에 별세 하였다고 적혀있다. 역사에 묻혀 있던 이 기념비를 재건하여 두 분의 합동했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양국민의 화해와 영원한 평화를 희망한다는 글로서 비문은 끝난다.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가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얼마나 고국에 그리고 삶이 힘들었을까. 한 많은 왕후의 삶이 너무 가슴 아팠다. 한국의 왕녀, 우리들의 조상이지 않은가. 우리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피는 물보라 진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내 부모형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어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돌아오는 길에는 파도가 높아서 모두 말미로 고생을 했다. 그 어느 여행보다 ‘한국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민족애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영화 '길 위에서'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신심 돈독하신 배기수 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영화 '길 위에서'를 상영하니 로부터 가자고 했다. 우리 내외와 친구 몇몇은 만나서 극장으로 갔다.

은혜사 백흥암에서 4계절을 영상으로 담은 이름

영화를 보면서 나의 옛날이 생각났다. 수 십 년 전의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묘했다.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인연들이 함께 살고 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 이름 지어진 후 스승은 이런 말을 했다. “제자가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잠이 오지 않으니 참 묘한 인연임을 알게 된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만행의 시간과 공유의 즐거움, 또 유쾌한 장난으로 행복한 시간들이 출가에 대한 생각 또 한 번 하게 했다. 백흥암 절 문이 닫히고 영화는 끝났다.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비구니 스님들이 신도들과 둘러 서 있다. 화면에서 본 스님이었다. 스님 눈가에도 눈물이 묻어있었다. 나는 “스님 성불 하세요.” 합창으로 인사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